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2022년도  
제3호

# 사랑의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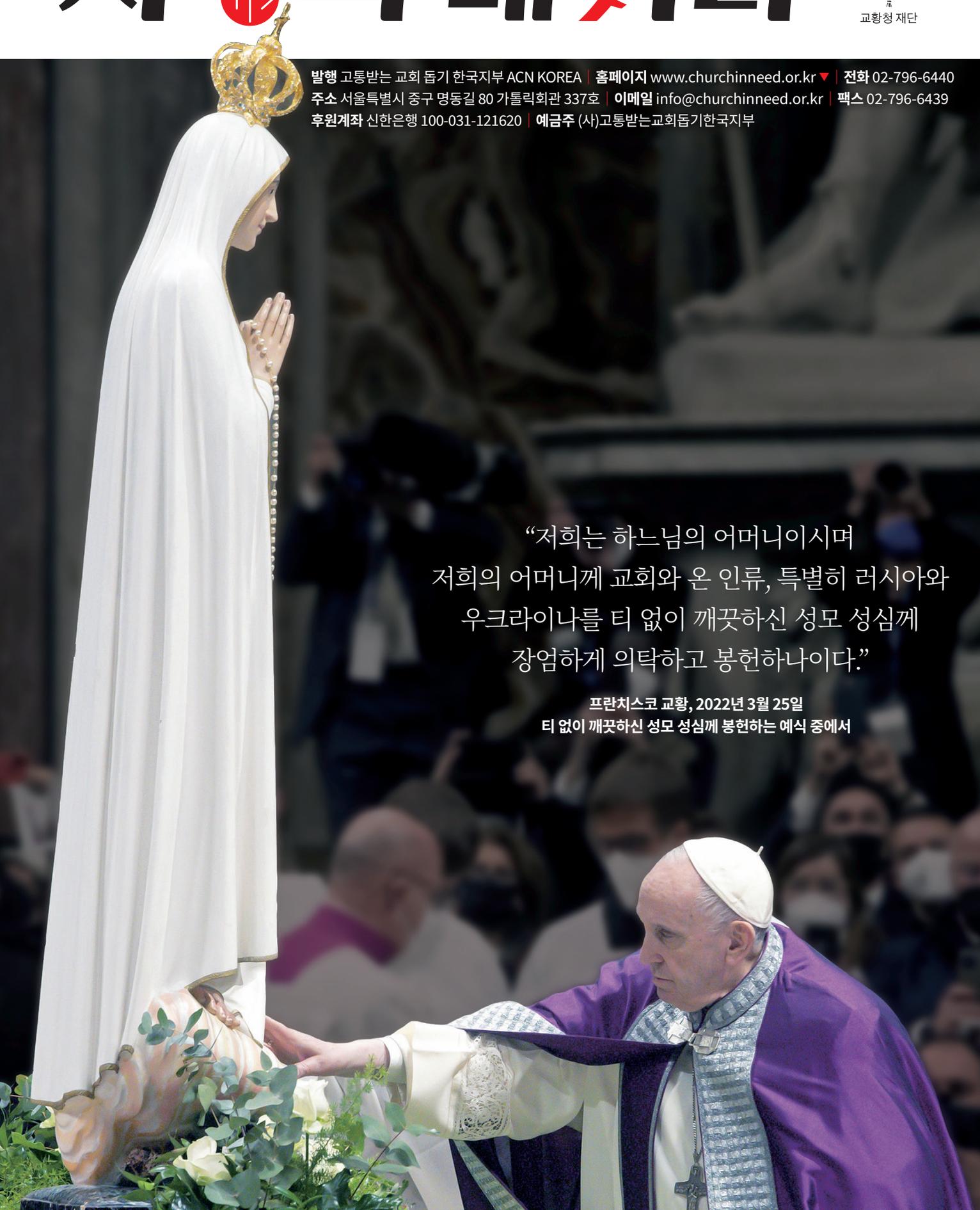


교황청 재단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mailto:info@churchinneed.or.kr) | 팩스 02-796-643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저희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저희의 어머니께 교회와 온 인류,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장엄하게 의탁하고 봉헌하나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2022년 3월 25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예식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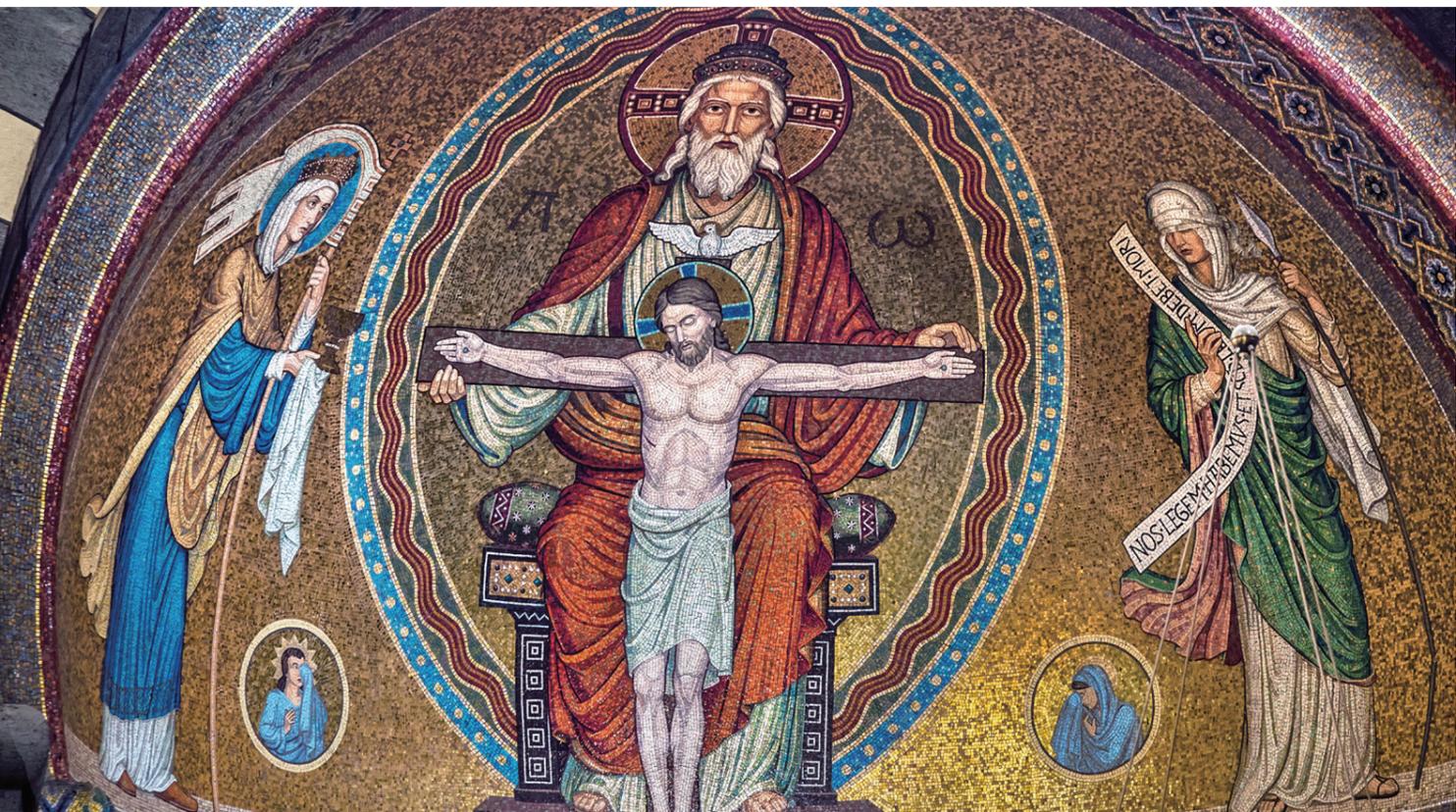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0년에 이미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Dives in misericordia)에서 점점 커지는 인류의 자멸 위험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그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우리 세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모든 민족을 말살할 수 있을 핵전쟁으로 인한 실질적 위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과의 결속을 상실할 때 겪게 되는 가장 내밀한 인간 핵심의 파괴를 더 큰 위협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글은 하느님을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실존적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교회와 인류에 대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창조주

서 세계와 긴밀한 연결을 맺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버지도 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과 결속되어 계시며, 창조보다 더 친밀한 인연으로 인간을,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결속만이 궤도를 이탈한 우리 세계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창조하신 당신 아드님을 사랑하시듯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성부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만찬 때 작별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도 알려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26) 이 이름이 아빠(Abba),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원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느님 자비의 자리" 독일 마리아 라흐 수도원



아버지와 자녀의 근원적 친밀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와는 뗄 수 없는 연결과 가장 내밀한 결속 안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소명이며 지고의 품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매일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어린아이처럼 깊이 신뢰하며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아개념에 도달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굳게 지키시는 아버지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들을 보고 달려 나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도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칭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 숙고해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영원히 우리의 온전한 행복을 이룰 하느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대의 고통이 더 크게 닥쳐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을 본래 모습 그대로, 즉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제 아버지이시며 제가 당신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제게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지요. 특히 제 영혼이 어두워지고 짙어진 십자가가 무겁게 짓누를 때 ‘아버지, 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라고 당신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제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에우제니아 라바시오 수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복을 보냅니다.

**ACN 지도신부 마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사가 많은 사람의 뇌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자들과 수백만 난민의 고통이 항상 존재하고 다행스럽게도 지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래도 부모나 조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한은 피난길에서조차도 얼마나 강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볼 때도 위안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족의 보호는 아이들에게만 그것이 하느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직감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결속시키고 가장 어려운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사랑은 약간은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윗세대가 모범을 보일 때만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후대에 계속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에 만연하는 개인주의로 인해 가정에 대한 이런 이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이 박해당하는 모든 곳에서 ACN이 기도를 통해, 그리고 사목적 동반자의 파견을 통해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지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 2022년 ANC 후원자의 날

올해 6월 24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자 교황청재단인 고통받는 교회돕기(이하 ACN)의 ‘후원자의 날’입니다. 이 대축일에 ACN의 직원들과 프로젝트 파트너들은 - 여기에는 수천명의 주교들, 사제들, 수도자와 사목을 맡은 평신도들도 포함되는데 - 지금까지 충실히 도와주신 ACN의 모든 후원자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후원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후원자들은 모두 ACN의 영적 가족의 일원이며, ACN의 사명과 사목활동의 ‘숨겨진 심장’이며 ‘강력한 엔진’입니다. 사랑의 원천인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열게 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고,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합니다(요한 15,16 참조). ACN의 후원자들은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예수 성심의 사랑을 닮아가는데, 이 사랑은 세상의 악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심이 성경에서 처음 묘사되는 부분은 착한 목자로서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요한 10,11-18 참조). 그분은 모든 양을 찾아가서 돌보시며, 양을 어깨에 지고 그분 심장 가까이에 대십니다. 이것이 ACN이 하는 활동의 사목적 특징입니다. 당신의 가장 거룩하신 성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이에게 선택하신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을 당신 마음 가까이 두시며,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고 하십니다(마태 25,40). 자비의 행위는 우리를 예수 성심과 가장 깊이 일치시

킵니다. 자비는 고통받고, 궁핍하고 약하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CN은 특히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우리 후원자들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리며, 프로젝트 파트너들과 함께 후원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 지향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후원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에 그들의 믿음이 감도되어 보이지 않게 ACN을 도와주며 후원금을 보냅니다. 구세주의 성심을 신뢰하며, 후원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 선물에 엄청나고 구원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ACN의 많은 후원자들은 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와 같습니다. 그녀는 성전 헌금함에 동전 두 닢을 넣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봉헌했다고 하십니다(마르 12,41-44 참조). 그래서 후원자들은 박해받는 교회에 금전적인 후원만이 아니라, 기도를 바치고 믿음을 봉헌하며, 심지어 그들의 심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도 함께 바칩니다. 후원자들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고통과 질병을 바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자선 사업은 값진 보물로, 축하지 않으며 해지지 않고, 좀이 쏘지도 못하는 돈주머니입니다(루카 12,33 참조). ACN은 예수 성심을 흠숭하고 사랑하여 하늘 나라의 참된 보물을 더욱 크게 만들고자 하며, 이렇게 주님께 청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제 마음이 당신의 성심을 닮게 하소서.

성녀 파우스티나는 자비로우신 예수성심의 사랑에 향한 아름다운 기도를 일기에 썼습니다(163번). 이 기도는 우리 후원자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적 동기와 더불어 ACN의 사명을 잘 표현해 줍니다. ✚

#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기도

ACN 지도신부  
마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오, 주님! 저는 완전히 주님의 자비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있는 영상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모든 속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주님의 한없는 자비가 저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저의 이웃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 이웃을 겉모양으로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웃들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귀를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 제 이웃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는 척하지 않게 해 주소서.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혀를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 제가 절대로 제 이웃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시고,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제가 떠맡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발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 저 자신의 피로와 권태를 극복하고 이웃을 도우려고 서두르게 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저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 제 이웃들의 모든 고통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저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친절을 악용하리라는 것을 제가 아는 경우에도, 그런 사람까지도 저는 성실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가장 자비로운 성심 안에 저 자신을 가두어 두겠습니다. 저는 저의 고통을 침묵으로 견디어 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자비가 저에게 머물게 해 주십시오. 아멘.



ACN설립 75주년

# 하느님을 위한 밀반입

공산주의 정권 국가들에서 성경을 비롯한 다른 종교 서적들은 신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물품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걸고 그것을 보유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50년대에 이미 ACN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기도서, 교리서, 성경, 또는 지하에서의 사제양성에 필수적인 신학 전문서적들을 동쪽으로 가져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때때로 서적 발송에 유리한 기회가 생기기도 했는데 1956년 헝가리 혁명 직후가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흔히 서적은 희생을 각오한 믿음 깊은 상인이나 외교관, 또는 선원들의 개인 집에 숨겨져 동쪽으로 밀반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용감한 남자와 여자들이 금서들을 타자기로 베껴 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책을 복사해서 은밀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위험한 모험을 사람들은 ‘사미즈다트(Samizdat)’라고 칭했는데 그것은 ‘자체출판’이라는 뜻입니다. 빅토르는 이런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검열이 가장 엄격했던 1980년에 종교 문헌을 복사하여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로부터 종교 서적을 받아 책을 해체했고 밤에 한 쪽 한 쪽씩 복사했습니다. 우리는 복사기가 있던 사업장에서 사용매수 카운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카운터 숫자를 검사했던 KGB 사람들이 전혀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발행 부수가 많을 때는 책 한 권의 복

사본이 100부에서 150부 정도에 달했습니다.” 빅토르는 결국 그로 인해 1년의 금고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빅토르는 ACN이 후원하는 서적 운송에 완전히 공식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마침내 합법적으로 종교 서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 사이에서 종교적 독서물에 대한 갈증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1991년 한 해 동안만 해도 ACN은 옛 동구권 국가들로 약 5백만 권의 서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출판 사도직은 ACN의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ACN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가톨릭 주간잡지」의 발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22년에 창간된 이 잡지는 1945년에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옛 유고슬라비아에 속했던 이 나라에서 현재 이 잡지는 다시 가톨릭교회의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그 사이 보스니아 교회에 대한 도전은 공산주의에 있지 않고, 아랍 국가들을 통해 추진되며 계속 진보하는 이슬람화에, 또 1990년대 내전의 결과들로 여전히 고통받는 이 나라에서의 여러 민족 간 화해의 필요성에 있습니다.

「가톨릭 주간잡지」는 회당 2,500부씩, 1년에 50회 출간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인쇄비용이 증가했습니다. ACN은 보스니아에서 이렇게 중요한 가톨릭의 목소리가 침묵하지 않기를 원하며 올해 지원금을 약 3,9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누가 함께 도움을 주겠습니까? ①

굴락(Gulag)에서 자작나무 껍질에 적어 비밀리에 제작된 성경



- ① 1989년 우크라이나를 위한 어린이 성경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 ② 1989년, 동쪽으로의 합법적 서적 운송의 출발



ACN설립 75주년

# 순교자들의 교회를 위한 지원

우크라이나 가톨릭 신자 대부분이 속해 있는, 로마와 통합된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교회를 ACN은 거의 70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1946년부터 1989년 사이에 이 교회는 유혈 박해를 당했습니다. 신자들은 지하에서나 망명지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요시프 슬리피(Josyf Slipyj) 추기경(1892-1984)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공산주의 수용소와 감옥 여러 곳에서 18년 동안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는 유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심야체포, 비밀 법정, 끝없는 심문과 감시, 도덕적 신체적 학대, 멸시, 고문,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파렴치한 판사들 앞에서 나는 마치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무기력한 죄수, 말 못하는 증인으로서 입이 틀어막히고 사형선고를 받은 고향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했던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교회는 1946년에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많은 사제와 신자들, 그리고 여러 명의 주교가 순교했고 수많은 사람이 구금되었습니다.

요시프 슬리피 추기경은 1963년 1월에 석방되었고 바로 그 직후에 로마로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요한 23세 교황을 알현한 후 곧 ACN의 설립자인 베렌프리트 신부도 만났습니다. ACN(당시 활동명 ‘동쪽 사제들의 지원’)이 최초로 철의 장막 너머의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전례 없는 그리스도인 박해에 저항하며 목소리를 높였을 뿐 아니라 망명한 우크라이나 신학생 및 우크라이나에서 해체된 스튜디오 수도회를 이미 1953년부터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 후에 망명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한평생 ACN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시프 슬리피 추기경이 1984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ACN은 망명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교회에 약

1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금 대부분은 고향에서 신자들이 카타콤베를 다시 떠날 수 있을 그 날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날은 1989년에 찾아왔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바티칸을 방문하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만나고 돌아간 후에 그리스 가톨릭 교회를 합법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급대주교였던 미로슬라프 루바치프스키 추기경은 로마 망명을 끝내고 1991년 3월에 리비우로 돌아왔습니다. ACN 대표단도 추기경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ACN은 모든 면에서 교회의 재건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루바치프스키 추기경의 후임이었던 루보미르 후사르 추기경이 ACN에 보낸 편지에서 한번은 이렇게 썼습니다.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교회를 지원했던 유일한 교회 기관이 ACN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내 우크라이나 교회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하 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스 가톨릭 교회가 활발히 활동하며 존속할 수 있도록 ACN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언젠가 역사가 밝혀줄 것입니다.” ①

- ① ACN 컨퍼런스에 참석한 루보미르 후사르 추기경
- ② 신앙을 지킨 위대한 고백자, 요시프 슬리피 추기경
- ③ 오늘날 교회는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 분노와 증오, 폭력에서 우리를 지킵시다!

전쟁이 일어난 첫날부터 ACN은 우크라이나로부터 파괴와 고난에 대한 극적인 소식들을 받았지만 또한 불굴의 신앙에 대한 소식도 받았습니다. 밖에서는 전쟁이 미쳐 날뛰는 동안 신자들은 자주 지하실이나 병커에 모여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키이우에 자리한 성 안토니오 로마 가톨릭 성당의 마테우시(Mateusz) 신부는 매일 저녁 거행하는 성체성사를 ‘이 땅에서의 한 조각의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0명이 넘는 신자들과 함께 신부가 주님을 고대하는 장소는 교회나 경당이 아니라 지하 피난소입니다. 사람들이 폭격을 피해 대피한 다른 병커와 은신처들로부터 그에게 전해지는 얘기들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신자들은 절망에 빠지거나 증오나 분노에 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느님 곁에 있다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느님께 받는 은총으로부터 나오는 이 커다란 내적 평화는 비교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전쟁과 충격, 폭발의 한가운데서 그것은 부활 신앙의 체험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성찬 전례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

을 확인시켜주시며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확신에 가득 차 말했습니다.

상황이 아직 괜찮은 다른 지역들에서의 신자들은 성모님께 보호와 전쟁 종식을 탄원하기 위해 성모상 행렬을 개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톨릭 주교들의 청원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3월 25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처음부터 심하게 폭격을 당한 도시들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입니다. 파비오 혼차루크(Pavlo Honcharuk) 주교의 주교관도 폭탄에 맞아 지붕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기적적으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공격을 피해 주교가 약 40명의 인원과 함께 피신한 지하 피난소에는 러시아 정교 미트로판(Mytrofan) 주교도 함께 기거했습니다. 두 주교는 함께 병원의 부상자들을 찾아갔고, 생필품 분배도 함께 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디에서나 주교들과 사제들, 수도자들이 신자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돕고 있지만 실로 끝없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들의 빈손을 채워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통

해서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ACN은 우크라이나 전체의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해 약 17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데도 특별히 기도 안에서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을 청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난민들과 과부들, 고아들을 위한 위로와 보호를 주실 것을 기도하며,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증오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마테우시 신부가 그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노와 증오, 폭력에서 우리 모두를 지킵시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이십니다!”

### 감사편지

##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키이우의 마테우시 아담스키 신부가 ACN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여러분의 연대감과 기도 안에서의 결속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는 위험과 가난 속에 고통받으며 다치고 두려움에 떨고 상처 입고 힘없는 우리 민족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인간적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달아 그들을 돕고 국내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저희를 기억해주십시오."

전쟁 중에 아담스키 신부의 주례로 혼인 예식을 올리는 한 쌍. 웨딩드레스는 없지만 하느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 한국 지부 기도 캠페인 소개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돕기**  
**한국지부에서는 절두산 순교성지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와 공동 주관으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께 바치는 묵주기도와 미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	장소	미사 집전 사제
5월 13일(금)	절두산 순교성지	한영만 신부님
6월 13일(월)	절두산 순교성지	박기석 신부님
7월 13일(수)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유경춘 주교님
8월 13일(토)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정순택 대주교님
9월 13일(화)	절두산 순교성지	구요비 주교님
10월 13일(목)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염수정 추기경님

오후 2시 묵주기도, 오후 3시 미사



### 고통받는 교회돕기 한국지부

##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 캠페인 참여 방법

- 1 고통받는 교회돕기 한국지부 누리집 접속 [www.churchinneed.or.kr](http://www.churchinneed.or.kr)
- 2 누리집 메뉴에서 **기도하기** ▶ **ACN 기도캠페인**
- 3 이름, 세례명, 연락처, 묵주기도(번) 입력 후, **참여하기** 클릭



# 사랑의 소명

2022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로마에서 제10차 세계가정대회가 개최됩니다. '가정 안의 사랑, 성화로의 소명과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했던 가정의 해가 마무리됩니다.



세계 어디서나 가정들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령수녀회의 테레사 타리모 수녀의 보고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아주 어릴 때,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을 합니다. “부부들은 가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많은 어린이가 거리에서 배회하다가 쉽게 유혹의 희생자가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부들은 자연적 가족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흔히 자녀 부양과 교육에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만연한 또 다른 문제는 - 대개 아버지들의 - 술 취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정 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자녀들의 정신적 손상을 유발합니다.

수녀들은 매회 80명의 참가자를 위한 1주간 교육과정을 1년에 2회 개최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갖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에게 성공적인 삶을 준비시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라우야에 위치한 사목 신학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두 번째 과정을 위해서는 수녀들이 유목민 마사이 족이 사는 지역으로 갑니다. 마사이 족 사이에는 아직도 그리스도교 신앙에 모순되고 많은 괴로움을 야기하는 전통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일부다처제와 소위 여성 할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네 살에 벌써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많은 설득 활동이 수행되어야 하고 게다가 교리교사들을 통해 신앙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가정들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ACN은 가치 있는 이 사업에 정기적으로 약 5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가정들이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도 다시 지원하고자 합니다. ☕

# 시리아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미래 전망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저는 평생 매 순간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지아드가 그렇게 확인합니다.



전쟁 전에 그는 예술적인 플렉시글라스 구조물을 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더 이상 그 수요가 없게 되자 그는 목공작업을 시작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충분하지 않았고 지아드는 게다가 연로한 부모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훌륭한 학교 교육을 받게 하려고 가족들은 습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아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ACN의 지원으로 다마스쿠스에 개원한 ‘크리스천 희망 센터’에서 지아드가 새로운 생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센터에서는 가정들에 약 360만 원 수준의 소액대출을 해줍니다. 소액대출을 받은 가정이 자영업을 창업



‘크리스천 희망 센터’가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를 선물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직업적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고향에서 미래를 갖게 되고, 그들 이전의 다른 많은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나라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센터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희망의 빛으로 유지되도록 누가 함께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

# 위험한 길을 운행하다

아우구스티노 응델리아키아마 샤오(Augustine Ndeliakyama Shao) 주교는 그의 광활한 교구 안에 흩어져 있는 작은 본당들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설 때면 매번 극도로 긴장하게 됩니다. 그의 교구는 탄자니아 해안 앞, 탄자니아 자치령 잔지바르 군도에 펼쳐져 있습니다.

2008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주교의 자동차는 우기에 온통 진흙탕 호수처럼 변하고 건기에는 돌과 먼지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길을 달립니다. 벌써 사고도 한 번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차에 여기저기 흠집이 났습니다. 차를 수리해야 하는 일이 점점 빈번해지고, 수리 비용도 점점 커집니다. 주기적으로 차가 멈춰 주교는 가던 길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일일 뿐 아니라 길 위에서 고장이 나

면 주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사제들 대부분이 그렇듯 샤오 주교도 벌써 여러 번 위협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무슬림이 우세한 지역에서의 치안상태가 상당히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구의 선한 목자로서 주교가 이 운행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험한 지형을 달릴 수 있는 사륜구동차를 타고 주교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ACN은 차량 구입비 약 384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도 북동부 미얀마와의 국경 지역에 있는 코히마 교구에 가톨릭 신앙이 존재하게 된 것은 겨우 1948년 이후의 일입니다.

당시에 한 병원에서 수녀들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선교사들은 원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선한 목자. 항상 양떼와 함께 있습니다.



잔지바르. 또다시 견인되고 있는 주교의 자동차.

주민 대부분이 전통적인 토착 신앙을 굳게 믿는 원주민 부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 처음 그리스도교를 접했습니다.

그 지역에 온 수녀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녀들은 가톨릭 신앙을 상징적으로 ‘심는다’는 의미에서 성모 마리아 메달과 십자가상을 은밀하게 마을들에 묻고,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퍼져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조용한 본보기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현재 코히마 교구에는 약 6만 명 이상의 가톨릭 신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강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조력자이신 동정 마리아께 교구가 봉헌되었고 매주 토요일에 성모께 바치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성모성월 5월에는 많은 곳에서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기 위해 행진이 개최됩니다.

나갈랜드(Tesophenyu)의 성 베드로 본당은 가톨릭 신

자들이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사제들은 믿을 만한 차량 한 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기 어려울 만큼 좁고 꼬불꼬불한 산길들로 마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오투칼라틸(Ottukalathil) 신부가 사용 중인 자동차는 출고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상태가 절망적입니다. ACN에 보낸 편지에서 신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을 만한 운송수단이 이곳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선교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신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에게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약 1540만 원이 없습니다. 누가 함께 도움을 주겠습니까? 🙏

인도 북동부. 신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 신자들과 무슬림을 연결합니다.

세바스티아노 담브라 신부는 45년 전부터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는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사이의 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2013년 9월에 이슬람 반군이 항구도시 삼보양가로 진입했습니다. 정부군은 반군을 다시 몰아내기 위해 몇 주 동안 맞섰습니다. 그리고 필라 요새의 성모 마리아 성전 근처에서 전투가 끝나고 성전이 무사히 보존되었을 때, 그리스도인 주민들과 무슬림 주민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앞서 역사의 흐름 속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성모 마리아가 이 도시를 보호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뿐 아니라 무슬림도 필라 요새에서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기 위해 초에 불을 붙입니다.” 세바스티아노 신부가 말합니다. “무슬림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성모상을 보여주면서 무슬림도 성모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그들도 동정 마리아의 정결을 믿고 성모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사이의 고요한 중개자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렇긴 해도 시칠리아 출신의 신부는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는 점점 증가하는 급진화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부 자신도 계속 위협받고 있고 두 번의 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살바토레 카르제다(Salvatore Carzedda) 신부는 1992년에 살해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제들과 두 명의 주교 역시 운명을 같이했습니다.



담브라 신부와 무슬림 동료

1984년에 세바스티아노 신부가 설립한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의 대화를 위한 실실라(silsilah) 센터’ 역시 이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80세의 사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화해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가 옳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실실라를 통해 다른 신앙을 가진 이웃을 형제로 보고 그에게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센터의 목표는 대화의 문화를 위해 2년간 젊은 이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평화와 화해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대 재생산자가 되어 습득한 지식을 자신들의 주변으로 널리 퍼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주신다면 올해도 ACN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2년 연수 과정에 다시 약 1억 4백만 원을 후원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 평화가 삼보양가에 자리한 필라 요새의 ‘기둥 위의 동정 마리아’ 성전 안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모성월 5월에 다시 수많은 사람이 성모 마리아께 공경을 드릴 것입니다. 이 전통은 ‘Flores de Maio’, 즉 ‘5월의 꽃 축제’라고 불립니다. 많은 무슬림도 여기에 참여할 것입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나라에서 그들 역시 ‘마리아의 백성’입니다. 테러리스트들조차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





### ACN 2022 사순·부활 캠페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교회의 신학생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총 931건 | 총 131,071,224원**  
 함께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ACN 한국지부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 방문

ACN 한국지부는 2022년 3월 19일(토) ~ 20일(일)에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을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며 ACN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만에 처음으로 교우분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모금활동을 펼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신 서초동성당 최동진 베르나르도 주임신부님과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방배4동성당 사순기간동안 진행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특별 모금액 44,257,000원 고통받는 교회돕기 한국지부에 전달



2022년 4월 27일(금), 고통받는 교회돕기(ACN) 한국지부는 서울대교구 방배4동성당으로부터 10시 미사 중에 사순 기간 동안 진행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특별 모금'의 모금액

(44,257,000원)을 전달받았습니다.

ACN의 우크라이나 긴급지원에 함께해주신 방배4동 성당 이동익 레미지오 주임신부님과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감사편지

##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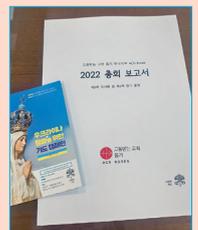
ACN의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 호로도크 소재의 '성령 신학교'에서 이번 학년에도 23명의 젊은이가 사제직을 향한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의 올렉산드르 학장이 동료들의 이름으로 ACN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교육의 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후원하는 후원자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희생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우리 자신을 위해 붙들고 있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상기시킨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사도 20,35)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선물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흡족해하시며 여러분에게 항상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2년 제9회 이사회 및 제6차 정기총회

2022년 5월 24일(화), 고통받는 교회돕기(ACN) 한국지부는 제9회 이사회 및 제6차 정기총회를 서울대교구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서울대교구 동서울지역 및 사회사목담당, 청소년담당 교구장대리 유경춘 주교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처음 주관하는 이사회였습니다.

ACN 한국지부는 2021년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의 ACN 한국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ACN 후원자의 날 미사

**방송 일시** 2022년 6월 24일(금)  
06시, 09시, 12시, 18시

ACN 한국지부는 2022년 6월 24일(금) CPBC TV 매일미사를 통해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사제 성화의 날) 미사 때 ACN 후원자의 날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ACN은 2021년부터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후원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ACN이 전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후원자분들의 후원 덕이며, 후원자분들은 교황청재단의 영적 가족입니다. 후원자의 날 미사 CPBC가톨릭평화방송 TV매일미사 시청을 통해 미사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